

“목욕봉사는 마음 맑히는 공부”

바라밀현장

천수천안자원봉사단 ‘간병’

“할머니, 시원하시죠?”
“응, 이 쪽도 cooler.”
1월 29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에덴노인요양센터 2층 목욕실. 천수천안자원봉사단 무량사팀 봉사자들이 설날을 앞두고 치매 노인들의 목욕봉사에 분주하다.
무량사 신도인 조미이(39·남양주시 수동면), 고연숙(43·남양주시 수동면), 박숙향(39·남양주시 마석) 보살이 노인들을 부축해 옷을 벗겨 주고, 비누칠을 하고 때를 민 후 샤워기로 씻어주면 요양센터 직원들은 서둘러 몸을 닦아주고 말려준다. 욕실 밖 복도에는 10여명의 노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줄을 서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전 내내 목욕을 시켜드린 노인들은 모두 60명, 명절이라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인원이다.



△천수천안자원봉사단 무량사팀이 1월 29일 경기 남양주시 에덴노인요양센터에서 치매 노인들을 목욕시켜주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론·실천 겸비한 탄탄한 조직력 갖춰 타 종교서 인정, 지역 포교에 성과 있어

는 이웃 종교를 믿는 노인들이 절에서 온 불자됨을 알고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은은한 정성으로 간병하니 저절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이제는 스님과 사찰에 대해 호감을 갖는 노인들도 생겨나, 오히려 수요처를 잘 택했다는 게 봉사자들의 말이다.

20여 팀원과 함께 매주 수요일 4~5명씩 조를 짜 치매 노인들을 돌봐 온 고연숙 보살은 “처음 종교 문제로 갈등도 있었고 치매 노인들의 변을 치우다 तो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인육공부를 하다보니 이제는 내 부모님 보시는 일처럼 기쁘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무량사 등 30여 사찰의 신도로 구성된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의 단원은 모두 300여명. 지난해 5월 11일 봉사단이 창단되기 전에는 내 절만 챙기던 불자들이, 이제는 사찰 구별 없이 서로 돕고 선의의 경쟁심을 발휘하고 있다. 절에서 배운 교리공부를 보살행으로 회향하면서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겸한 불교의 참뜻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이 불과 8개월만에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탄탄한 조직으로 자리잡은 것은 체계적인 교육 때문에 가능하다. 3회에 걸쳐 전문간병자원봉사자 초급교육을 수료한 단원은 221명. 이들이 국립암센터, 한국경진(장애인)학교, 일산노인복지관, 인덕원,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홀트일산복지타운 등에서 간병 및 특기(생활체육, 수지침, 지압, 발맞사지 등), 가사청소, 도시락 배달, 주말일 등) 봉사 등을 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의료분야의 다양한 자원봉사를 시도하고 있는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은 호스피스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는 한편, 일산 동국대불교병원 호스피스 활동에 나설 대책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봉사단은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문간병자원봉사자 중급교육을 실시해 보다 원숙한 봉사자들을 배출할 예정이다. 사단법인을 설립, 자생적인 봉사단체로 거듭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031)969-0108 남양주=김재경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케마 스님 (下)

짧고 굵은 수행, 놓아버리는 과정

열정적인 전법여행을 펼치던 케마 스님은 어느날 ‘유방암 선고’란 운산 철벽(銀山鐵壁)에 부딪혔다. 그러나 스님은 수행 지도를 쉬지 않은 것은 물론, 남은 생을 약물 투여와 치료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입원도 거부한 채 목숨을 건 마지막 임명정진에 나섰다.

발병 후 9년째가 되자 케마 스님의 육체적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수술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스님은 입원해서도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법을 설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5주 동안의 입원기간은 동분서주하며 전법에 나섰던 육신을 모처럼 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할 정도이니, 스님의 큰 원력을 짐작할 수 있다.

케마 스님은 입원기간에 두 번이나

말이다. 케마 스님이 1999년 독일 북타 하우스에서 입적하기에 앞서, 자신의 짧고 굵은 수행역정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법문이다.

1923년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난 스님은 미국에서 결혼하여 1남1녀를 둔 후 60년대에 남편과 함께 히말라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 명상여행을 떠나면서 출가인연의 싹을 틔웠다.

이후 오스트리아에 머물던 케마 스님은 73년 영국의 칸터필로 스님을 만나 비로소, 가슴으로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을 발견했다. 케마 스님은 79년, 55세의 늦은 나이에 출가해 스리랑카에서 니안포니가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출가’가 자신의 일생

임사 체험 통해 ‘수자상’ 떨쳐

‘출가’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

임사(臨死) 체험을 하며 극적인 수행의 전기를 맞이 한다. 몸에서 힘이 다 빠져 나가고 말조차 나오지 않는,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다. 케마 스님은 이 때 죽음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나 저항도 없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지극한 정성을 생각할 때 조금이나마 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죽음과 유사한 체험을 통해 수자상(壽者相: 목숨이 있다는 생각으로 몸에 애착을 갖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는 케마 스님은 병고(病苦)가 진정한 스승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든 집착을 놓아버렸기에 아무런 부축함도, 원하는 것도 없는 마음의 상태를 얻게 된 것이다.

케마 스님은 아잔 차 스님(1992년 입적한 태국의 고승)이 언젠가 ‘방에 왜 그렇게 물질문명의 소산인 물건이 많으나?’는 일반인의 질문에 대해 답했던 설법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탁자 위에 잔의 형상을 갖추고 존재할 때 이 우리는 아름다운 색채를 드러내기도 하고 경쾌한 소리도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에게는 이것이 유리잔으로 보이겠지만, 내게는 이미 부서진 유리일 뿐입니다.”

자신도 이미 ‘유리(相) 깨진 것’과 같은 마음 상태에 놓여있음을 암시한

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회고한 케마 스님은 많은 비구니 제자를 양성하고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스님은 1987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국제대회를 주관, 불교여성운동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여세를 몰아 국제 불교여성단체인 사키야디타(Sakyadhita)를 창설하는 업적을 이뤘다.

김재경 기자



△케마 스님



조미이 무량사 팀장 “동체대비 진리 체험”

“수요처에서 이웃 종교인들과의 갈등이나,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힘든 일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모두 생생한 마음공부예요.”

전문간병 교육을 마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서 남양주시 무량사 신도들의 에덴노인요양센터 자원봉사를 이끌고 있는 천수천안자원봉사단 조미이(39·남양주시 수동면) 무량사팀장. 그녀는 자원봉사를 통해 대승불교의 사상자체가 복지불사임을 알게 됐다고 강조한다.

“종교가 달라도, 내 부모가 아니어도 마음이 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이 발하는 원리를 알게 됐다는 조 보살은 “모든 불자들이 배워서 아는 것 만큼 실천하는 참불자가 될 것을 발원한다”고 덧붙혔다.

도심에서 포교하는 스님이 찾아 오셨다. 근황을 묻다가 스님의 한탄조 섞인 말씀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동네에 사는 어느 노보살님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딸이 있어 제발 잘 좀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딸 문제는 그 만두고 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노보살님은 부처님을 원망하며 길에서 스님을 보면 외면하고 돌아선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왜 자신의 불행을 부처님께 전가하고 탓하는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면 포교에 정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은 현재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가 수도원으로 돌아가시는 부처님을 마을 밖까지 배웅하러 나왔을 때 그를 말리셨거나 혹은 그의 죽음을 미리 예견해 주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 그 수도도 셀 수 없느니라. 행복 한 죽음과 불행한 죽음은 그 시나 방법과 있지 않고 그 죽음을 당하는 자신과 그 죽음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여래는 그 젊은이에게 영원히 죽

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설했고, 그는 그 가르침을 듣고 세상에서 일지 못한 행복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불행한 임종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임종을 맞이한 것이니라.”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탁월 육체적 죽음이나 돌발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사태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다. 앞의 노보살님이 좀 더 지혜로운 불자였다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부처님을 원망하기 보다는 그 죽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법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부처님을 믿다가 망했어도 부처님이 옳고 흥했어도 부처님이 옳다는 믿음이 서지 않고서는 세상의 길흉화복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적연(유마선원장)

마음비추기

법 향한 올바른 믿음 가져야

지 배움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음을 당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처님은 잠자코 계셨으나 제자 아난존자는 매우 언짢아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는 세존이 아니었더라면 저런

그러자 부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아난을 훈계하셨다. “그대는 무엇을 불행한 죽음이라 하느냐. 그는 불행한 죽음을 당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죽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죽는 방법

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설했고, 그는 그 가르침을 듣고 세상에서 일지 못한 행복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불행한 임종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임종을 맞이한 것이니라.”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철보) 내호함 (도자기)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확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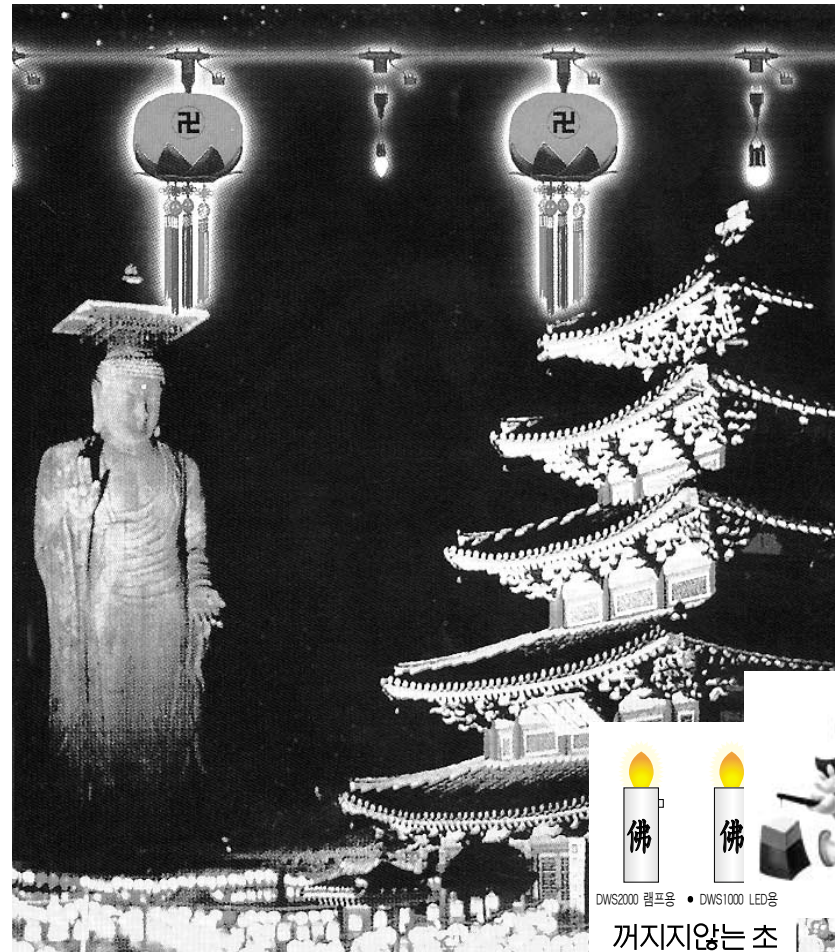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2263-0551 서울서 중구 쌍림동 146-2 국제빌딩 3F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정사소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사찰전구

- ▶ 불계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초

- ▶ 정사소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합니다. (견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2)2263-2638
http://www.bulje.co.kr 주소: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